

<2018 국가직 7급 채용 가답안 나책형 기준>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③	③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②	②	②	①	①	④	①

문 1.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 ㉠ )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예(禮)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 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 ②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③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 ④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의 ㉠에 해당하는 나라는 고조선이다. 중국 사서(삼국지 위서동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호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격(逆擊)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 하였는데, 그의 대부 예가 간하므로 중지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정답 해설]

④ 고조선은 8조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는 한서 지리지에 세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생명과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보호, 계급 사회 등 당시의 사회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고구려, ②는 동예, ③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문 2. 조선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 ②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 ③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학문 활동을 장려하였다.
- ④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였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① 1392년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개경(開京)에서 한양부(漢陽府)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해인 1395년 한양부를 한성부라고 이름을 고쳤다.
- ③ 세종은 집현전을 수시로 방문하여 학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가독서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집현전 학자들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제공하는 일종의 유급 휴가였다.
- ④ 간경도감은 조선 세조 때 불경의 국역과 판각을 관장하던 관립 기관이다. 1461년(세조 7) 6월에 왕명으로 설치하여, 1471년(성종 2) 12월에 폐지하기까지 11년간 존속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창덕궁은 태종 때(1405) 건립되었지만, 창경궁이 건립된 것은 성종 때(1484)이다.

문 3.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시행된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 ②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 ③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였다.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교육입국조서는 2차 갑오개혁 당시 교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조서이다. 교육에 의한 입국(立國)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③④는 제1차 갑오개혁 당시의 정책이다.(2차 갑오개혁 때는 8아문을 7부로 개편하였다.)

문 4.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한 7·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① 4·9 혁명 발발
- ② 금융실명제 실시
- ③ 5·8 민주화운동 발발
- ④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1972년 발표된 7·4남북 공동 성명, (나)는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③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시민들은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4·19 혁명은 1960년 4월, 학생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이다.
- ② 금융실명제는 은행 예금, 증권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 대신 실제 이름을 사용하게 한 제도로,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실시되었다.
- ④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실시되었다.

문 5.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ㄷ.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ㄹ.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정답 해설]

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받아들인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ㄷ.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임시 정부는 즉각 대외 활동을 펴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으며, 그 후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 포고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한인 애국단은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31년 결성되었다.  
 ㄹ.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갖춘 것은 1925년 2차 개헌에 의해서다. 1940년대에는 4차 개헌(1940)을 통한 주식 중심 체제와 5차 개헌(1944)을 통한 주식·부주식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

문 6. 1880년대 개화정책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정청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 ㄴ. 청에 파견된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무기제조법을 배웠다.
- ㄷ.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는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 ㄹ.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정답 해설]

ㄴ. 1881년 김윤식과 학생, 기술자 등을 청에 파견하여(영선사) 청의 근대적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습득하게 하였다. 예산과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1년 만에 돌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한성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機器廠)을 설치하였다.(1883)

ㄷ. 1883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의 답방 형식으로, 민영익(전권 대사), 홍영식, 유길준 등을 미국에 파견하였다.(보빙사) 이들은 최초의 구미 사절단으로 미국을 순방하였으며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오답 피하기]

ㄱ. 1880년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창설된 곳은 통리기무아문이다. 교정청은 1894년 조선 정부가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ㄹ.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조사시찰단X) 『조선책략』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선의 주장으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 7.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쇠(中衰)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 ①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창도하였다.
- ② 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 ③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 ④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기자실기』를 지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이이의 주장 내용이다. 그는 국가가 중엽의 시기에 이르면 극도로 태평스럽다가 점차 쇠약해지는 시기(중쇠기)가 온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통치기구의 재편과 위정자의 자질 향상, 경제적 능력에 맞는 부세와 중간수탈의 배제를 목표로 한 수미법의 시행 등을 주장하였다.

[정답 해설]

④ 『기자실기』는 이이가 편찬한 것으로, 기자가 우리 민족을 교화하여 중국과 같은 문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고 하여 기자를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 높이 숭상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은 조식, ②는 이황(이이의 저서는 성학집요), ③은 박세부에 대한 설명이다.

문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조가 아뢰기를, “㉠자의 왕대비께서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기년복으로 결정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①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 ②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송시열은 ‘체이부정(體而不正)’을 내세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 국조오례의 의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현종 때 발생한 기해예송(1659) 당시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 서인은 신권을 강조하며 1년설을, 남인은 왕권 강화를 주장하며 3년설을 주장하였다.

[정답 해설]

- ① 자의대비는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인 조씨로,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대비(大妃)가 되었다.
- ② 기해예송 당시 남인 학자였던 윤휴(尹鑄)는 국왕의 상에는 모든 친족이 참취복(斬衰服, 3년)을 입는다는 『주례』 규정을 들어 3년 복상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 ③ 기해예송 당시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등의 서인은 대통을 계승해도 참취를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예외 규정[사종설(四種說)]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체이부정(體而不正: 서자가 계승한 경우)’을 들어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④ 기해예송 당시에는 『주자가례』 를 근거로 제시한 서인의 주장(기년설)이 받아들여졌다.(『국조오례의』 를 근거로 삼은 것은 남인이다.)

9.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 태학 설립	백제 『서기』 편찬	신라 『국사』 편찬	고구려 신집 편찬
		(가)	

- ①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 ②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 ③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거칠부 등이 국사를 편찬한 것은 신라 진흥왕 대인 545년, 신집 편찬은 고구려 영양왕 대인 600년의 사건이다.

[정답 해설]

- ④ 노리사치계는 백제 인물로, 552년(성왕 30) 10월 성왕의 명에 의하여 불상과 불경을 일본에 전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킨 것은 475년의 일이다.
- ② 금관가야는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원군을 파견한 400년의 사건 이후(5세기) 세력이 약해져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 ③ 건원은 신라 법흥왕 대에 사용된 연호이다. 법흥왕은 536년(법흥왕 23)에 연호를 칭하여 건원원년(建元元年)이라 하였다.

문 10. (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참회법과 미타정도신앙을 실천행으로 강조하는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나) 송광산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禪風) 진작에 힘을 기울여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 (다) 북악과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여 화엄교단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 (라)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술을 망라한 '신편계종교장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① (가)-중국 화엄종의 방계(傍系)인 이통현의 화엄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② (나)-선을 체(體)로 삼고 교를 용(用)으로 삼아 선과 교의 합일점을 구하였다.
- ③ (다)-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유희 사상을 표방하였다.
- ④ (라)-(다)의 화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요세, (나)는 지눌, (다)는 균여, (라)는 의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해설]

- ②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 ③ 균여는 귀법사를 화엄종의 본찰로 삼고 분열된 종파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仁裕)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958년에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균여의 화엄 사상은 본래 북악의 유희 불교의 입장에서 남악의 사상까지를 종합하여 화엄종 교단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법상종의 세력까지 흡수하기 위하여 성상유희 사상을 주창하였다. 균여는 '성속무애' 사상을 펴기도 하였는데, 이 사상은 불교계의 융합은 물론 세속계까지 융화하려는 강력한 통합 사상으로, 성상유희 사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 ④ 의천은 종래의 고려 화엄학과는 다른 교관겸수(教觀兼修)의

수행법을 강조하였다. 즉, 화엄학이 교학(敎學)에 머물면 불교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심성(心性)의 본래 모습을 체득하는 관행(觀行)을 닦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천은 교학과 관행을 같이 닦는 교관겸수가 화엄 학자에게 필수적인 수행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당시 고려 화엄학의 중심이 되고 있던 균여의 교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이통현은 중국 당 나라의 불교 학자로 『화엄경』을 연구하여 『신화엄경론』 등을 저술하였다. 그의 화엄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은 지눌이다. 지눌은 당시 불교계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던 이통현의 『신화엄경론』을 접하면서 자신이 지녔던 직관적 신념에 대한 확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통현의 화엄사상은 중국의 정통 화엄사상인 법장의 화엄사상과는 달리 보다 실천적이고 선적인 요소가 매우 강한 것으로서 화엄교가들 가운데서는 등한시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눌은 바로 이와 같은 이통현의 화엄해석에 깊은 감명을 받고 화엄에도 돈오 사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 11. 다음과 같은 시기에 재위하였던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 (중략) ...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었다.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

- ①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 ②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각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공민왕 16년(1367) 성균관 중영과 성리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1367년(공민왕 16년) 성균관 대사성이 된 이색은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였고 성리학의 보급 및



문 14. 밑줄 친 ‘그’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도(금성)에 성곽을 쌓으려고 문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正道)만 행하면 복업(福業)이 오래 갈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에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

- 삼국사기 -

- 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 ②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 ③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 ④ 가지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문무왕의 도성 축성을 의상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의상은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는데, 문무왕이 경주에 도성(都城)을 쌓으려고 할 때 민심(民心)의 성(城)을 강조하면서 이를 만류하였다.

[정답 해설]

② 의상은 당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을 창설하였으며,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원효 ③ 원측 ④ 도의에 대한 설명이다.

문 15. 다음 풍속이 행해진 나라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썩은 뒤에 다시 뼈만 추려서 큰 목곽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에 합장했으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목곽 옆에 두었다.

- 삼국지 -

- ① 창녕비
- ② 황초령비
- ③ 사택지적비
- ④ 충주 고구려비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옥저의 가족공동무덤 풍습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골장제, 세골장, 두벌 묻기)

[정답 해설]

② 옥저는 지금의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신라 진흥왕 때 함경도 지역 진출을 입증하는 황초령비(함경남도 함주)가 정답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창녕비(경남 창녕), ③ 사택지적비(충남 부여) ④ 충주 고구려비(충북 충주)

문 1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신문 발간에 관여했던 그는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했으며, 1897년 4월에 ‘국문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문장들이 한문에 토를 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언문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① 우리말큰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② 문법 서적인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 ③ 조선어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 ④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밑줄 친 그는 주시경이다. 주시경은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에게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회계사무 겸 교보원(校補員)이 되었다. 순한글 신문제작에 종사하게 되자, 그 표기통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여 그 연구에 진력하였다. 1897년에는 국문론이라는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답 해설]

② <국어문법>은 1910년 주시경이 지은 국어문법서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931년 조직된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중단되었고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때 한글 학회가 중단되었던 <우리말 큰사전>을 완간하였다.(1957)
- ③ 1921년 이운재, 최현배 등이 국문연구소(1907)의 전통을 이은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주시경은 1914년에 사망하였다.
- ④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문 17.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 ①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 ② 동북항일연군을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두었다.
- ③ 지청천, 조소앙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하였다.
- ④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정답 ①

[자료 분석]

밑줄 친 ‘이 단체’는 민족 혁명당이다. 민족 혁명당은 1935년 중국 난징에서 조직된 독립 운동 정당으로 민족연합전선의 성격을 띠었다.

만주사변 이후 독립운동이 독립운동단체들의 통일 방안이 모색되어 그 결과 김구식은 조선혁명당, 의열단, 한국독립당 등의 인사들과 협의하여 1932년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가 연락기관의 역할에 머무르는 데 한계를 느끼고 더 강력한 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해, 1935년 7월 난징에서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의열단의 대표들이 모여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정답 해설]

① 1935년 한국 독립당(조소앙), 조선 혁명당(지청천), 의열단(김원봉) 등 여러 단체들의 인사들이 민족 독립 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민족 혁명당을 창건하였다. 1935년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한국 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동북항일연군은 1936년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만주에서 만들어진 항일투쟁을 주도한 군사 조직이다.
- ③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 계통 인사들이 민족 혁명당을 주도하자 지청천, 조소앙 등은 여기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민족 혁명당은 조선 민족 혁명당으로 개편(1937)되었

다.

- ④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국민당은 민족 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족혁명당은 한국 독립당·의열단·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미주대한인독립당 등 5당 대표가 난징에서 결성하였다.

문 18.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너희 공경 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 ㉠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신라의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 ③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 ④ 지방호족들의 경계기반으로 고려 무신정권기까지 존속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사료는 934년(태조 17년) 5월에 태조(왕건)가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내린 교서의 일부이다. 태조는 이 교서에서 “관리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자기의 녹읍(祿邑)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만일 무지한 부하들을 녹읍에 과견한다면 오직 수탈만 일삼아 착취를 함부로 할 것이니 너희들이 어찌 다 알겠는가. 또 혹시나 하더라도 역시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녹읍이다.

[정답 해설]

- ①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보수·대우하려는 제도에서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녹읍제가 언제 처음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520년(신라 법흥왕 7년) 율령 반포를 전후한 시기에 제도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답 피하기]

- ② 녹읍(祿邑)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할(수조권) 뿐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

력도 징발할 수 있었다.

- ③ 녹읍은 관리에게 고을[읍(邑)] 단위로 지급한 것이다.
- ④ 녹읍제가 존속한 시기는 삼국 시대의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존속되었다.

문 19. 밑줄 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위향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 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 ① 어우야담      ② 연조귀감
- ③ 호산외기      ④ 소대풍요

정답 ④

[자료 분석]

조선 후기 위향 문학(서울을 중심으로 중인 이하 계층이 주도한 한문학 활동)에 해당되는 시집을 찾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 ④ 소대풍요는 조선 후기 위향시인들의 시집으로 162인의 시편 685수가 시체에 따라 선집되어 있다. 수록된 시인은 중인·서인을 비롯하여 상인·천예 출신까지도 망라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어우야담은 광해군 때 어우당 유몽인이 지은 야담집(野談集)이다.
- ② 연조귀감은 조선 정조 때 이진홍이 향리들의 사적(事蹟)을 요약, 정리한 역사서이다.
- ③ 호산외기는 김정희 문인이자 화가인 호산 조희룡이 19c 헌종 때 중인 등의 전기를 수록한 책이다.

문 20.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할 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중략)...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이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

- ① 이순신, 을지문덕 등 위인의 전기를 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②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 ④ ‘조선심’을 강조하며 정약용 연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의 <독사신문>의 일부이다.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1908)을 연재해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답 해설]

- ① 신채호는 <최도통전>(최영), <이순신전>,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을지문덕전> 등을 저술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항일 독립 운동에 관한 역사서인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정인보는 동아일보에 ‘5천 년간 조선의 얼’을 연재해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 ④ 문일평은 <조선사화>를 통해 ‘조선심’을 강조하였고, 1934년 안재홍, 정인보와 함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